

# 전남 결핵 신규환자 전국서 가장 많다

지난해 10만명당 75명 발병 절반 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광주는 45명... 전국 14위

2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결핵이 발병한 환자(신환자) 수는 전남 1419명, 광주 653명이었다. 전남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수는 75.6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 51.5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광주는 45명을 기록해 전국 14위였다. 전남의 결핵 신환자 수는 2017년 1503명, 2018년 1419명으로 감소 추세지만 타 시도의 감소세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2017년 703명, 2018년 65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결핵 신환자 중 65

세 이상 노인은 전체 결핵 신환자 2만6433명 중 1만2029명으로 45.5%에 달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 65세 이상 노인의 2018년 신환자율은 2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240.8명, 경북 228.3명 이어 세번째를 기록했다. 광주는 164.6명으로 여덟번째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령 가구는 물론 자연히 독거노인 수도 많은데다 결핵 자체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어려운 탓에 결핵에 취약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결핵환자가 3만 9557명이 발병한 이후 최근 7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2018 세계결핵발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주 이상 기침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서 "결핵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등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전남대 박춘구 교수팀 결핵균 감염 영향 단백질 발견

전남대 연구팀이 결핵균 감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을 발견, 결핵 치료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전남대 박춘구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팀은 충남대 송창화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결핵균 감염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유전자 750개를 발굴했고, 이를 면역세포에서 조절했을 때 결핵균의 감염을 생존율이 감소되는 것을 밝혀냈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전교조·교총 광주서 평화통일 교육 공동 추진

### 6·15광주교육본부 꾸러

광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광주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4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총에 따르면 두 단체는 통일 교육, 남북 교육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단체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교육본부'(6·15 광주교육본부)라는 이름 아래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의 공동 대표, 집행위원장 등 대표단을 꾸렸다. 오는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소개한다. 전교조와 교총은 '광주 교사의 힘으로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를 열자'라는 구호 아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단체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1주

년에 즈음해 시교육청과 함께 통일교육 주관을 정하고 관련 교육에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양 교원단체는 평화통일 관련 교육자료도 함께 개발한다. 시교육청의 남북 교육교류 사업 추진에도 남북, 북미 정세에 맞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광주 학생 독립운동 9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북측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6가지 교육교류 사업을 북측에 제안할 바 있다. 공모교장 선발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시작차를 보여왔던 두 교원단체의 협력사업은 이례적이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교조와 교총이 평행선을 그어왔던 게 사실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해선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염원하는 것은 하나다.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평화 통일 교육, 남북 교육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여고보 비밀결사 소녀회 회원들



오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제2관에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 서울전이 개막한다. 전남여고의 전신인 광주여고보 비밀결사 소녀회 회원들의 사진. /연합뉴스

## '보행자 먼저' ...야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 4차로 이하 시간대 2시간 단축

경찰이 야간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운영되는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차로 수와 구간 제한속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점멸신호는 심야시간대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 또는 적색등이 깜박이게 하는 방식으로 황색점멸등이면 차량 속도를 줄여 진행하고,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가 잦고,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16~2018년 일반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05건 중 사망자 비율이 1.9%(968명)인 반면 같은 기간 점멸신호에서는 6343건 중 3.1%(199명)가 숨졌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공동연구 결과, 5차로 이상 도로와 제한속도 시속 60km 이상인 경우와 시간당 교통량이 차량 400대를 넘을 때 사고가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운영시간대는 '밤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자정~새벽 5시'로 2시간 단축한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0 해질 18:48 달뜨기 23:26 달지기 09:21

### 아침 기온 '뚝'

구름 많고 일부 지역 아침기온 영하권으로 출몰.

광주	구름많음	2/16	보성	구름많음	-3/14
목포	구름많음	4/14	순천	구름많음	2/16
여수	구름많음	5/14	영광	구름많음	1/15
나주	구름많음	-1/16	진도	구름많음	4/13
완도	구름많음	5/15	전주	구름많음	2/15
구례	구름많음	-3/16	군산	구름많음	3/14
강진	구름많음	-1/15	남원	구름많음	-2/15
해남	구름많음	-2/14	축산도	구름많음	6/15
장성	구름많음	-2/15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 ◇ 생활지수

높음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14	05:13
22:27	17:21	
여수	05:47	11:55
	17:52	--:--

### ◇ 주간 날씨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4/1(월)
☀️	☀️	☀️	☀️	☀️	☀️	☁️
6/19	5/20	7/18	6/16	4/15	5/16	6/17

## 올 봄 광주·전남 건조하고 평년보다 따뜻

올 봄 광주·전남은 건조하고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름의 시작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광주·전남 4~6월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하고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아 4월과 5월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6월의 기온이 평년(21.2~21.5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152.7~230mm)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6월 하순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기상청 관계자는 "4월 일시적인 상층하기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잠깐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5일 밤부터 26일 아침사이에는 광주·전남에 가시거리 3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주 광주·전남은 완연한 봄 날씨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6일까지 광주·전남의 미세먼지를 '보통' 단계로 예보했지만, 남해안 등 일부 지역은 대기정체로 인해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최초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하면 환자 생존율 2배 ↑

심정지 환자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 환자의 생존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심장정지 환자 354명을 분

석한 결과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자발회복순환' 환자는 54명(15.3%)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경우 25명(7.1%)에 그쳤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경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사(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태양광·전력·전선·제약)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